

# 교육·교통·친환경 3박자 목포 명품 주거타운 기대



목포시 연산동 백련지구가 한창 조성되고 있다. 백련지구는 이미 기반 조성이 끝난 용해지구와 인접한데다 대양 산단, 세라믹 산단 등과 가까워 배후 환경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른쪽에 용해지구의 아파트가 보인다.

## 목포 백련지구가 뜬다

목포시가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활발히 추진중인 가운데 오는 연말 택지 조성을 마치는 백련지구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주민들의 입주로 활성화 된 용해 1·2지구와 인접한데다 목포시청 등이 있는 원도심 또한 가깝다. 여기에 대양·세라믹 산업단지 개발 등 배후 수요도 큰 편이다.

◇백련지구,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각광=목포시 백련지구 B-1 블록이 연말 조성을 끝내고 공공 및 민간 분양에 들어간다. 대지면적 2만9928㎡(9000평가량)의 백련지구는 당초 용해 1·2지구와 함께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제외된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로 다시 개발지역에 포함되면서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현재 791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예정됐다. 공공분양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휴먼시아', 민간분양은 새천년종합건설의 '천년가'가 각각 건립된다.

백련지구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목포 도심에서 찾기 힘든 배후 환경 때문이다. 백련지구는 목포 구도심권에 자리 잡고 있지만 새로 개발되는 만큼, 사실상 신도시 개념으로 조성되고 있다. 목포는 그동안 전남도청 이전 뒤 무안 남악 신도시 위주의 개발이 진행돼 왔지만 용해 1·2지구 성공리에 분양을 마치고 활성화되면서 다시 구도심권으로 인구가 이전하는 추세다.

용해지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원도심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다 인근 산단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며 "과거 구도심을 탈피했던 주민들이 남악 주변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 상승 탓에 다시 유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백련지구 주변엔 용해2지구에 45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사업이 예정돼 있다. 북쪽으로는 대양일 반산업단지가 착공에 들어가 산단 조성중에 있다. 또 세라믹 일반산업단지도 인근에 있다. 5km 거리의 목



목포 백련지구 예상 조감도

## 새천년종합건설 '천년가' 등 중소형 아파트 791가구 조성 용해 1·2지구와 원도심 인접 기반시설·광주 접근성도 좋아 이주 수요 풍부...새 입지 급부상



포시청 주변은 원도심 정비사업이 진행중이다. 교통 및 교육·편의 환경도 목포 도심에서 가장 좋은 편이다. 백련지구 바로 옆엔 산정공원이 들어서 있으며 초·중·고등학교도 새로 들어설 계획이다. 목포 IC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어 광주와의 접근성도 좋다. 용해지구를 이용하면 목포 어느 지역이든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압해대교, 고하대로, 대양로 등 교통망이 우수하다.

◇노후 아파트 많은 목포, 새 수요 증가 추세=무엇보다 백련지구의 가장 큰 장점은 이미 갖춰진 편의성을 바탕으로 새 아파트가 지어지는 목포의 가장 최신 주거타운이라는 점이다.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목포 시내의 아파트 76.3%(4만2008가구)는 지어진 지 11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다. 목포 전체 5만5000여 아파트 가운데 지은 지 5년 이하의 아파트는 4200여 가구에 불과하다. 그만큼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여지가 큰 편이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화에 힘입어 아파트 분양시 미분양 물량이 사라진 점 역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10년 1분기 1682가구에 달했던 목포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2011년부터 빠르게 해소되며 올 1분기 기준 202가구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인근 용해지구에서 지난 2013년 분양했던 골드클래스7의 경우 분양률이 97%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분양한 도화에드거는 90%에 가까운 분양률을 보인 바 있다.

전남의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용해지구나 백련지구가 있는 목포 서쪽은 구도심 생활권이다 보니 노후화로 인해 수년 전만 해도 주거선호도가 낮은 지역이었지만 산업단지들 등에 지고 6000가구 규모에 가까운 주거타운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새집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의 이전이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련지구 조성사업을 맡고 있는 LH 관계자는 "공원과 편의 시설 등 다른 구도심과 달리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며 "2500여명의 계획인구가 집혀 있는데 분양 시점이 되면 금세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임동룡기자txian@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37.62 (-1.48)
- ▶ 코스닥 730.47 (-14.77)
- ▶ 금리 (국고채 3년) 1.72% (-0.02)
- ▶ 환율 (USD) 1158.40원 (-6.50)

## “채권단 과욕에 금호산업 매각 무산 우려”

### 광주경총, 공정가치 사수 촉구

광주경영자총협회가 29일 “채권단의 과욕이 금호산업 매각 자체를 무산시키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금호산업 채권단을 겨냥해 비판입장을 내놓았다. 광주경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채권단이 공정가치를 무시한 채 현재 금호산업의 주당 가치인 1만8000원의 3배에 달하는 5만9000원으로 평가해 인수가로 무려 1조 원 대가 넘는 금액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가치 평가를 주장해왔던 채권단이 삼일·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공정가치 이대도 주인을 잃고 다시 매물로 나올 경우 과연 새 인수후보를 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 과연 어느 기업이 공정가치도 지키지 않은 가격 1조원을 투입할 수 있

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원주인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박상구 회장은 지난 5년간의 구조조정 과정에 빼어난 고통을 감내하며 경영 정상화에 힘써 왔고, 특히 박 회장은 22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하고 무상감자에 동의하는 등 책임 경영을 펼쳐왔다”며 “채권단이 재기에 나서려는 호남 유일 대기업의 발판과 지역민의 염원을 뒤흔드는 것을 보며 자칫 금호그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움마저 앞선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총은 “금호산업이 금호아시아나 그룹 품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인수가 무산 되면 호남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채권단이 금호의 재기를 염원하는 지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시장의 공정가치를 지키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동룡기자txian@kwangju.co.kr

## 은행 적금 금리도 1% 시대

### 년 1.94%...전월비 0.07%P ↓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은행 정기적금에 적용되는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연 1%대로 하락하는 등 예금금리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6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를 보면 6월 예금은행의 정기적금 금리(가중평균·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1.94%로 전월 2.01%보다 0.07%포인트 떨어지면서 1%대에 진입했다. 6월의 적금금리 1.94%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정기예금 금리도 연 1.65%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떨어졌다.

은행의 각종 저축성 수신상품 평균 금리는 연 1.67%로 전월(연 1.75%)보다 0.08%포인트 내렸다. 이로써 지난달 은행 정기예금 중에서 1%대의 금리가 적용되는 비중은 97.5%에 달해 2%대 정기예금 금리는 사실상 사라졌다. 비은행 금융권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지난달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연 2.24%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은 연 3.01%로 0.05%포인트 떨어지면서 3%선이 다시 위협받는 수준까지 내려갔다. 가계대출은 0.05%포인트 내린 연 3.22%, 기업대출은 0.10%포인트 떨어진 연 3.61%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 삼성 드럼세탁기 美서 2분기 판매 1위

삼성 드럼세탁기가 가전업계 최대 격전지 미국시장에서 올해 2분기 판매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06년 미국 드럼세탁기 시장에 진출한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시장조사기관 트라큐라인(TraQline)이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는 2015년 2분기 미국 드럼세탁기 시장에서 22.3%의 점유율(매출 기준)을 기록, LG전자(21.8%)와 월플(17%)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삼성은 2분기의 약진을 소비자 니즈 공략으로 분석했다.

동급 최대용량과 강력한 물 분사로 세탁 시간을 획 줄인 ‘슈퍼스피드’, 자동으로 세탁조를 청소하는 ‘셀프 클린 플러스’ 등의 기능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먹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삼성 세탁기는 이달 중순 최고 권위의 시장조사업체 JD파워가 발표한 세탁가전 부문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업계 최초로 드럼세탁기·전자동세탁기·의류건조기 등 3개 부문 평가 1위를 휩쓸 바 있다.

임동룡기자txian@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 초혼 추천회원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 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크리미, 미스전복 27-36세

### 재혼

의사, 변호사 32-65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공무원, 교사 32-58세
대기업 간부 36-59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자영업, 교사 35-64세
'무술신 여성' 희망 31-58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이랜드빌 608

#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앞으로의 금융

## 광주문화신협, 북광주신협

저금리 무담보 무보증 신용대출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최고 7,000만원

문화신협과 북광주신협에서 신속히 지원 해 드리겠습니다

- 대상업종 : 메르스 피해로 인한 매출부진 업종 (음식점, 마트, 소매업종 등)
- 자격기준 : 2015년도 월평균대비 6월기준 카드매출 5%이상 감소 사업장
- 대출한도 : 최고 7천만원 한도(사업주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적용됨)
- 대출기간 : 최장 700일
- 상환방식 : 매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구분	180일	360일	500일	700일
1,000만원	56,874	29,103	21,332	15,628
3,000만원	170,622	87,309	63,996	46,885
5,000만원	284,371	145,515	106,660	78,142
7,000만원	398,120	203,721	149,325	109,399

**문흥본점** 266-4150

(문흥지구 동서사거리)

**양산지점** 573-4150

(양산동대우사거리)

**운암지점** 528-4150

(운암동문정사거리)

**블루밍지점** 513-4150

(블루밍동대우사거리)

**매곡지점** 572-4150

(매곡동대우사거리)

**침단지점** 576-4150

(침단동대우사거리)

**북광주신협 입국지점** 572-8167

(남광주동대우사거리)